

아라카와쿠 俳句 (하이쿠) 의 지역선언

“가는봄날에 새 울고 물고기눈에눈물

원록 2년(서기 1689) 3월 이시를 처음으로 붓을 들어
松尾芭蕉 (마츠오 바쇼) 는 그생애에 걸쳐“오쿠노 호소미치”에 길을 떠났습니다.
바쇼가 건넜던 센주오오하시는 에도와 동북의 땅을 연결하여
우리를 俳句(하이쿠)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다리로서
옛적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스미다강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고가고
바쇼의 생각과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正岡子規 (마사오카 시키) 와 小林一茶 (고바야시 잇사) 와
種田山頭火 (다네다 산토우가) 까지
이땅에서 하이쿠를 읊었습니다.

“5.7.5”의 17 문자가 무한대로 넓어져 가는 세계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전하는 힘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을 가집니다.
세계의 모든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힘을 가집니다.

아라카와쿠는
하이쿠의 미력을 차세대에 이어가는 가교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이쿠문화의 산기슭을 넓히어
풍부한하이쿠의 마음을 미래에 전할것을 다짐하여
“하이쿠의 지역 아라카와”를 선언 합니다.

2015년 3월 14일

아라카와쿠

기초위원회 위원장 村馬 康子
위원 金子 兜太
小池 寛治
佐々木 忠利
銭谷 眞美
西村 我尼吾